‘여호와의 날’ 벌어지는 일

(요엘 1:1~20)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호와의 날’ 벌어지는 일

요엘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15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에 이사야, 아모스, 오바댜, 스바냐 등에서도 16번 넘게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요엘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주제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엘은 남 왕국 유다의 선지자로써 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초기에 활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악했던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남 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서 남편 여호람 왕이 죽자 자기가 낳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가 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기게 되고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뒤에 섭정을 합니다. 이때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금 바알 숭배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 왕국 유다는 조상들에게서도 본적이 없는 메뚜기 재앙과 한발 즉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는데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메뚜기의 종류로써 연속적으로 네 번이나 유다를 덮쳐 모든 작물을 황폐화시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와도 산천초목이 초토화되는데 네 번을 덮쳤으니 나무껍질조차 하얗게 될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란 우리의 마음에 네 번 연속으로 메뚜기 떼가 임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장의 초반부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피해가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비유로 삼아 선민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슬피 운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질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는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슬픔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 왕국 유다에 닥치게 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이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인간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현상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삼라만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특정한 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 하루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물론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티벳의 라마 승려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일부 선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란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75억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75억 인구 각자에게서 유일한 관심사요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체의 것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반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산 아래 인간세상에서 꿈꾸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천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황홀경과 같은 극도의 좋음입니다.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에서 드러나는 감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의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각종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지갯빛과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시고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이 좋으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때를 일컫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날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여호와의 날’이 유다 나라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비유 삼아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 인간세상에서 꿈꾸었던 세상일들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기쁨거리로 삼고 살았던 모든 일 또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베드로의 마음을 습격한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에는 그 어떤 세상의 좋음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네 번이나 메뚜기 떼가 덮친 결과 산천초목이 초토화되어서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만족의 근간인 풍요로움을 이루게 하는 것은 곡식과 과실과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메뚜기 떼에 의해 곡식과 과실은 초토화되었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 가축들도 모두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마음에 비유하자면 변화산의 베드로의 마음에서 추구하던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떼가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덮치고 한발이 덮쳤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한 재앙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축복이 되는 이중성을 띤 역전의 상황입니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를 대면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함께할 수 없게 될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좋으심도 알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좋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때가 오면 세상에서 찾던 기쁨이 메뚜기 떼가 임한 농경지처럼 황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산 아래의 세상일을 다 잊어버렸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분리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자 세상이 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에 더 이상은 마음의 기쁨거리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15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시다는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 때에 선민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을 것이기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메뚜기 떼와 한발이 곡식과 과실과 가축을 다 멸절시킨 것처럼 마음에서 세상 기쁨거리들은 가치를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어서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요구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알았으니 슬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마피아로써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었던 알 카포네(Al Capone, 1899~1947)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 카포네가 말년에 탈세혐의로 구속되었을 때에 갇혔던 곳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섬 위에 세워진 알카트라즈 감옥이었습니다. 이때 알 카포네에게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감옥의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알 카포네에게 있어서 도심의 야경이란 자신의 전성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다면 모를까 휘황찬란한 도심의 야경이 이제는 자신과 동떨어진 것임을 알았을 때에 큰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볼 수 없었다면 단순히 지옥의 고통만을 받았을 텐데, 천국에 간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에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더욱 괴로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불입니다. 물론 지옥불은 하나님이 가스나 석유를 부으셔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고통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내 마음에 메뚜기 떼가 임한 것처럼 깡그리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의 불은 따로 외부에서 불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지옥불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지옥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유일한 기쁨거리로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자녀가 형통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마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정해졌는데 그 기쁨거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거리를 언젠가는 손에 쥘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 지옥이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때에 만민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메뚜기 떼를 만난 것과 같이 세상의 기쁨거리들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분명히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임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느끼며 세상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메뚜기 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리라 믿어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곡식과 과실과 가축들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메뚜기와 한발의 재앙이 내려 그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목숨이 끊어져 심판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같은 의미로 구약시대에는 십자가의 예표로써 성전의 생활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스스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메뚜기 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가치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십자가를 떠올리며 세상에 대해 죽는 고백을 하였다면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면 또 세상에 눈길이 향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십자가를 떠올리며 마음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네 번을 덮치고 한발이 덮쳤듯이 마음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해 깡그리 죽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한발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곡식과 과실과 가축들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서 기쁨거리가 된다고 믿어지는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장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앞당기고 반복하여 살아가는 동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가 4중으로 먹어치우고 한발이 일어나 세상의 기쁨이라 여겨지는 대상들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선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생활화 함으로써, 하루에 최소한 네 번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여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한 한발이 덮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모든 것들을 근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극히 좋으심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